

광주·5개 시·군, 기후위기 공동 대응키로

상생간담회...가뭄·폭염·홍수 등 중장기 대책 등 논의 환경회의 정례화...통합물관리·온열환자 응급 체계

대도시인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인근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원탁회의를 정례화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도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2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강영구 나주부시

장, 박철원 화순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 물관리 행정당국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뭄 관련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폭염·홍수 등 예측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맞서 공동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현안을 공유하고, 이상기후로 일상화된 자연재난 위험 속에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비상시 생활·농업·공업용수를 지자체 간 유연하게 이용하고, 유역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주호~동북댐, 나주호~덕남정수장 연계 등 통합물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인접 생활권 지자체 간 가정·가뭄·폭염·홍수 등 기후위기 환경회의'를 통해 통합 물관리 뿐 아니라 온열질환자 응급체계 구축, 기타 기후위기 대응 등 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50년 만의 가뭄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이미 2018년부터 폭염·홍수·가뭄 등 유례없는 기후위기가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뭄종합대책에 광주·전남이 주장해온 대책 대부분이 포함됐다"며 "기후위기 원탁회의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김영록 지사 "모든 권역 고른 발전...균형성과담담관 신설"

전남도가 동·서·중·북부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고른 발전을 이끌기 위해 균형성과담담관실을 신설한다.

김영록 지사는 2일 "전남동부지역본부장이 3급에서 2급으로 격상·신설된 만큼 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동부뿐 아니라 서부·중부·북부 등 권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영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6월 정례조회를 통해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 신설 예정인 균형성과담담관은 국가 균형발전 못지않게 전남 자체 균형발전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동부지역본부 개편과 관련해 "당초 언급했던 해양수산국을 남기고, 일자리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을 확대해 옮기도록 한 것은 기술부서만 집중하지 않고 행정직을 충분히 배치해 종합행정서비스를 하고, 시·군(동부권) 직원의 전입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장이 총괄조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 직인도 불만 없이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생명의 땅 전남, 첨단산업·문화 융성 융복합 사회로 미래를 활짝 열자"고 덧붙였다.



제4기 청년창업자 발대식. 지난 3일 오후 남구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기 청년창업자 발대식'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응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청년 로컬창업 10개팀 선발...팀당 최대 1200만원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사업화 자금 단계적 지원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광주시민회관에서 제4기 청년창업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년창업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

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제4기 청년창업자 10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10개팀은 ▲자연친화활동 분야 1팀(아코노브) ▲로컬푸드 분야 2팀(테소나, 무아베이크산) ▲거점브랜드 분야 1팀(주디마리푸드) ▲지역가치 분야 4팀(크리에이티브아트, 더플래너스, 누대족발, 리부띠고) ▲지역가치제조 분야 2팀(시루, 리브르블랑)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창

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 사항을 청취한 뒤 "성공창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꿈을 키워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발대식 후 청년창업 소상공인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한 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애로사항 해결, 전문 컨설팅·멘토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플라마켓도 열렸다.

/권영만 기자

"모두의 오월됐다" 5·18 추모 감사 서한 강기정 시장, 참배객·시도행사위 등에 감사인사

강기정 시장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강 시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오월광주를 찾아온 참배객과 전일발명 245 방문객, 기념행사를 연 전국 시도 5·18 행사위 등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강 시장은 서한문에서 "올해도 5·18을 맞아 광주를 찾아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늘 미안한 마음이고, 빛진 마음"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광주는 언제나 이 땅의 민주정신을 밝히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라고 힘을 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영령들을 추모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광주정신'이 생겼고, 진실규명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큰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갈 수 있다"며 "함께 해주신 덕분에 두렵고, 떨리고, 외로움에 사무친 오월이 아닌 '모두의 오월'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기다리며 내내에도 함께 걷고 싶다"며 "항상 오월광주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18 제43주년을 맞아 광주는 물론 전국, 해외(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전야제, 기념식, 계승사업, 오월역사박물관 등 193개의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또 5월 한 달 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2만 여명(일일 평균 9562명)으로, 전년(일일 평균 7330명) 대비 30.5% 증가했다.

/조선주 기자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5만5천ha...전국 최다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433억원 지원...전국 42% 차지

전남지역 벼 대체 전략작물 전환 신청이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5133ha를 신청 받아 지원액이 433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에선 13만 2240ha를 신청한 가운데 전남이 5만 5133ha를 신청해 전국 4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2만 5157ha, 경남 1만 1802ha, 경북 9185ha, 충남

5208ha 순이었다.

작물별로 동계작물은 4만 9052ha로 이 중 사료작물이 3만 5645ha, 보리·귀리 등 1만 656ha, 밀 275ha 등이었다. 하계작물은 콩 2402ha, 사료용 곡물 2909ha 등 총 6083ha로 집계됐다.

신청인 증언 청년 농업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별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 14%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40대 이하(3.8%)보다 3.7배 많았다.

/권영만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생활지원비 개편

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에 참여한 사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

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다.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K-Health 국민의료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나, 광주 병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